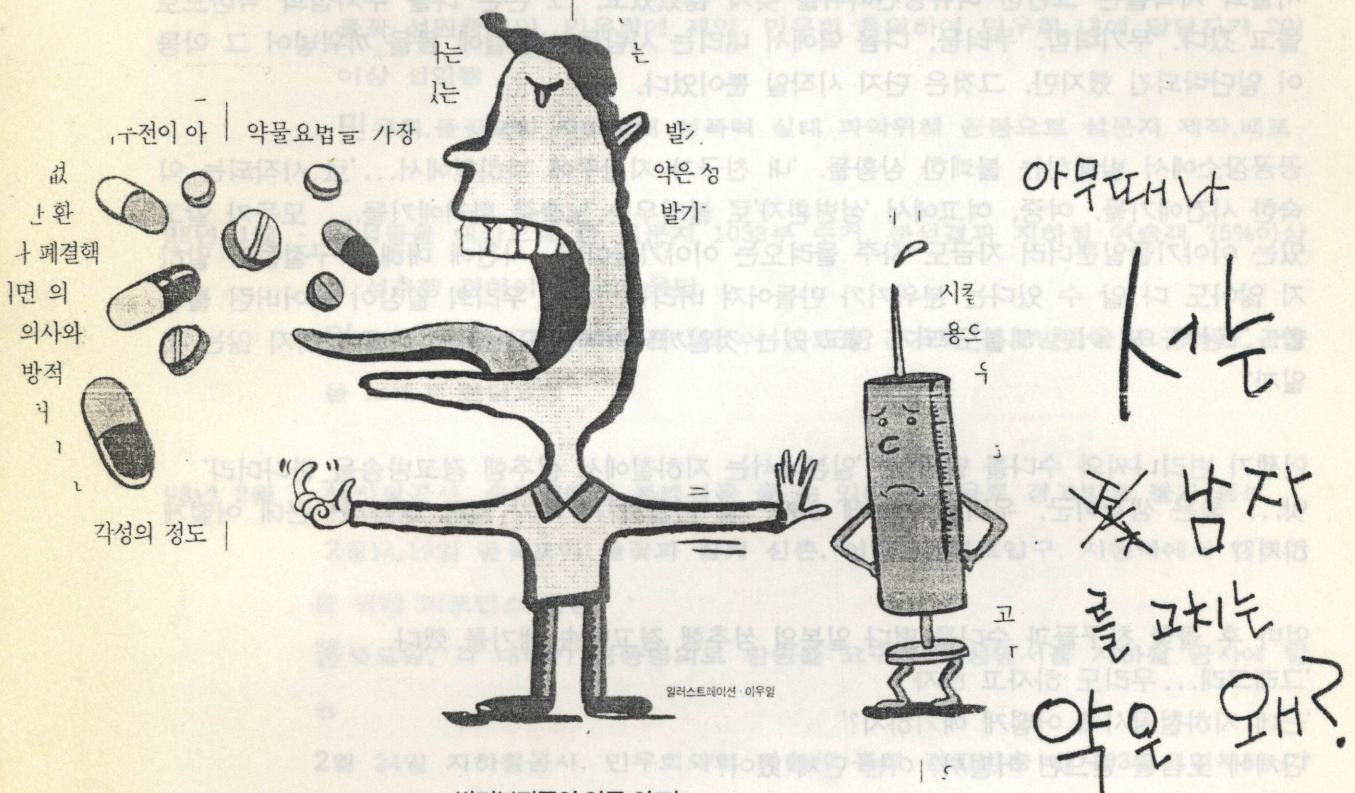


총 22화

카라오라

-지하철 성추행 편



발기부전증의 약물 치료는
주사나 보형물 삽입수술보다 효과가 작다.
그러나 획기적인 치료약이 곧 선보인다.
고개숙인 남성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쾌락 도구로 남용될까 걱정이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나는 돌꽃이 지난 겨울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을 뺏어봐
무늬만 설문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마

- 돌꽃이 -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중학교 3학년 때, 지하철로 통학을 했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의 어느 날이었다. 여느때보다 조금 늦게 학교로 출발한 그날 하필이면 러시아워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급한 마음에 몸을 끼워넣기는 했지만, 고개를 돌리는 것 외에는 어떤 동작도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엉덩이에 스물스물한 느낌이 전해져왔다. 공포? 황당함이었을까? 나는 차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저 몸을 틀어보려고 애를 썼을 따름이다. 그러나 서울의 지옥철은 그만한 여유공간따위를 갖지 않았었고, 그 손은 나를 수치심의 극한으로 몰고 갔다. 무기력함. 두려움, 다음 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물결에 몸을 끼워넣어 그 악몽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상황들. '내 친구가 지난주에 지하철에서...'로 시작되는 익숙한 사건얘기들. 여중, 여고에서 '성병환자'로 불리우는 노출증 환자얘기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뿐더러 지금도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사건에 대해 구구절절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불편함. 그런데, 왜 어떤 해결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도 해결하자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언젠가 변리나씨와 수다를 떨던 중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경고방송을 한다더라' 앓... 좋은 생각이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왜 안할까??? 내가 말을 해볼까? 근데 어떻게 하지??

얼마 후 돌꽃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일본의 성추행 경고방송 얘기를 했다.

'그래그래... 우리도 하자고 하자'

'근데 지하철공사에 어떻게 얘기하지?'

'단체에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아는 단체 있어?'

옆테이블에서 놀고 있던 호빵이 어느새 옆으로 와 있었다. '나 민우회에 아는 사람 있는데' 그래서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 요구운동(?)이 시작되었다.

일상의 불편함에 돌을 던지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거창한 단체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심지어는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다. (시간은 좀 필요하다.) 꼭 유일하고 폼나는 해결책으로 세상을 놀래키지 않아도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실마리는 이것이라고 말하면 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차라리 조금 썰렁해질 것을 각오하더라도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서 말했으면 좋겠다. 이세상의 구원자가 나야한다는 소명의식따위도 필요없다. 단지 죽이 맞는 친구 몇 명만 있다면...